

經絡과 精神養生의 관계 設定에 對한 考察

백진웅, 김광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dian and hygiene of mind

Jin-Woong Baek, Kwang-Ho Kim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It is thought that Kim Hong-kyeong followed the existing theory of Meridian(經絡) and supplemented his unique perspectives in interpreting it. And he tried to relate Meridian with hygiene of mind.

I took up with the research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view of Kim's method can present new perspectives to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Meridian and hygiene of mind.

The results of my study are as follows :

1. Kim followed common theory of Meridian and then added his unique perspectives to it. His method of interpretation has one characteristic. By introducing Idealism(唯心論), he understood 'Meridian' as the path of the mind and the emotion. Especially I think his hypothesis that acupuncture can be widely used in mental diseases as well as body related diseases and its applications to treatment are very valuable.

2. Meridian and hygiene of mind are close together.

I think Kim's unique trial is something new in studying relationship between Meridian and hygiene of mind but requires more research on it.

Key words: Meridian, hygiene of mind

서론

精神養生이란 精神을 調養함으로써 心身を 건강하게 유지하고 疾病을 예방하며 老化를 방지하는 등의 이론, 원칙 및 방법을 논하는 학설을 말하는데 韓方豫防醫學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다.¹⁾ 『素問』 「上古天真論」을 보면 '精神內守, 病安從來'²⁾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韓醫學에

서 精神養生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왔음을 보여준다.

舍岩鍼法 연구자인 김홍경은 精神養生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를 구체적으로

- 1) 김광호 編著, 豫防韓醫學, 서울, 서원당, 2002, p 54
- 2)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傳統文化研究會, 1993, p 18

經絡 이론과 연관시켰다는 점이다.

經絡은 인체 내 氣血 순환의 통로다.³⁾ 經絡은 氣血을 운행시켜 신체를 자양하고 인체의 이상을 반영하며 侵襲 病邪나 鍼灸 刺戟 등을 傳導하는 作用을 하며,⁴⁾ 十二經脈이 經絡系統의 主體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⁵⁾

김홍경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經絡 이론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만 經絡을 해석함에 있어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덧붙였다. 唯心的 經絡 해석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는 마음의 작용 기전을 經絡 이론과 결합하여 “經絡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통로다.”라는 독창적 가설을 주장하였다.⁶⁾ 즉 각 經絡 속을 흐르는 기운을 唯物的⁷⁾ 차원 뿐 아니라 唯心的⁸⁾ 차원으로도 유추 파악함으로써 마음 상태에 따른 발달 經絡의 차이, 經絡 발달의 불균형에 따른 발

생 疾病 및 치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는

제가 하는 강좌는 전적으로 唯心的 韓方論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唯物的인 것은 너무나 많이 파헤쳐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둘을 합해야 전체가 되지 唯物 혹은 唯心的의 어느 하나를 아무리 깊이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全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⁹⁾

라고 밝혔듯이 그 동안 간과했던 唯心的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唯物的으로 치우쳐 연구해 온 經絡의 전체 면모를 밝히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精神養生과 經絡 이론을 연관시킨 연구 방법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著者는 김홍경의 學說을 考察함으로써 經絡과 精神養生法과의 관계 設定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론

1. 김홍경의 經絡 해석 방법에 대한 考察

김홍경의 經絡 해석 방법에는 큰 특징이 있다. “經絡이란 의식과 감정의 통로다.”라는 假說을 세워 經絡을 唯心的으로 파악한 것이다. 본 章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經絡은 의식과 감정의 통로다

(1) 經絡은 의식과 감정의 통로다

김홍경은 經絡이란 의식과 감정의 통로라고 주장하였다.¹⁰⁾ 그리고 經絡이란 것은 우리 인체 내에 흐르는 미묘한 기운이므로 觀해 보지

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 45

4) 上揭書, p 55 - 56

5) 上揭書, p 59

6) 김홍경, 동양의학혁명 총론,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1, p 70

7) 唯物的 : ‘唯物的’이란 용어는 ‘유물론’이란 용어에서 차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유물론’의 사전적 의미는 “물질을 우주 만유의 근본 실체라 하며 정신도 고도로 조직된 특성의 물질, 곧 두뇌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 관념론과 더불어 철학상의 2대 조류.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에서 17-18세기의 기계적 유물론을 거쳐 마르크스에 이름.”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唯物的’이란 용어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8) 唯心的 : ‘唯心的’이란 용어는 ‘유심론’이란 용어에서 차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유심론’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의 본질을 정신이라 보고 존재보다 사유가 근원적이라 하는 이론. 플라톤에서 피히테, 셸링을 거쳐 헤겔에 이르러 합리론 체제로 됨.”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唯心的’이란 용어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 비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9) 上揭書, p 29

10) 김홍경, 동양의학혁명 총론, p 47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¹¹⁾ 經絡의 순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 진행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서 의식과 감정의 변화에 따른 經絡 기운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그의 주장이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밀히 관찰한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주관적 체험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격적인 자세는 주로 옆구리에 손을 얹게 되는데 옆구리에 손을 얹게 되면 足少陽膽經의 에너지가 흐르게 되지요. 무심코 하는 행동에 따라 어떤 經絡의 에너지가 흐르기도 되고 그 치계도 된다는 사실은 觀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¹³⁾

배가 고플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표정을 짓게 되고, 원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손으로 이마를 짚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經絡에 흐르는 기운을 알 수가 없습니다.¹⁴⁾

우리가 밥을 먹은 후 배를 두드린다면 足太陰脾經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足太陰脾經의 에너지가 實할 때 어떤 증상이 오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화도 내 보고, 배도 고파보고, 또 많이 먹어도 보세요. 그럴 때 느끼게 되는 우리 기분의 변화로써 해당 經絡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¹⁵⁾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눈을 쳐 내리깔고 듣고 있는 표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표정이나 형상은 이렇듯 唯心的인 기운, 즉 心氣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經絡에 따른 특징적인 마음과 형상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¹⁶⁾

즉 특정 심리 상태에 따른 자세나 태도를 經絡 유주와 연계하여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經絡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결국 각 經絡을 흐르는 기운을 유추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⁷⁾

구체적인 예로 督脈과 任脈의 관찰을 통해 한 생각이 經絡을 이루고 있으며 또 經絡이란 마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督’字에는 ‘감독한다’, ‘나는 너를 의심한다’는 뜻이 있고 ‘任’字에는 ‘일임한다’, ‘신임한다’, ‘믿고 맡긴다’는 뜻이 있으므로 督脈은 부정적인 상태, 任脈은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화가 날 때에는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는 입 모양이 되고 만족스러울 때 표정은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덮는 입 모양이 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 날으는 새를 예로 들면, 독수리의 윗부리는 아랫 부리를 덮고 있습니다. 즉 督脈이 발달되어 공격적이고, 의심이 많고, 경계심, 복수심이 강합니다. 반면에 펠리칸 같은 새는 아랫턱이 발달되어 있어서 아랫부리 속에 새끼를 넣고 다닙니다. 선천적으로 任脈이 발달된 것이지요.¹⁹⁾

○ 상어를 보세요. 督脈이 발달되어 있어서 성질이 사납습니다. 경계심, 의심이 많고, 공격적이고 陽的입니다. 그런데 명태는 윗턱보

11) 上揭書, p 46

12) 上揭書, p 70

13) 上揭書, p 86

14) 上揭書, p 86

15) 上揭書, p 205

16) 上揭書, p 216

17) 上揭書, p 109

18) 上揭書, p 108 - 109

19) 上揭書, p 109

다 아랫턱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어와 명태 중 어느 쪽이 알아나 새끼를 많이 낳겠습니까? 물론 아랫턱(任脈)이 발달된 명태가 임신에 능하겠지요.²⁰⁾

위의 예를 통해 그는 任督脈의 발달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그 개체의 대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요약하면 그는 “經絡이란 의식과 감정의 통로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의 움직임, 생김새, 자세와 태도, 행동 습관 등에 대한 ‘예민한 관찰’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매우 화를 낸 후 생기는 偏頭痛은 足少陽膽經 기운이 實해진 때문이며, 두려움이 생길 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은 足太陽膀胱經의 기운이 實해진 때문인데 이러한 느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經絡 기운 전체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위해서는 많은 수행이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의식과 감정 상태에 따른 행동 습관을 관찰하고 이를 經絡과 연계시켜 보려는 시도를 통해 누구나 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주장에 대한 완전한 검증을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외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가 公案法을 통해 도달한 경지에 이를 정도의 개인적 수행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인간의 마음 구조는 세 가지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홍경은 인간의 마음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²²⁾ 그는 인간의 욕망은 1차, 2차, 3차 욕망으로 나뉘어지

는데, 1차 욕망과 2차 욕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有愛라고 하고, 3차 욕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無有愛라고 한다고 하였다.²³⁾ 그리고 1차 욕망은 의식주에 관한 것으로 신체와 관련 있는 욕망이고, 2차 욕망은 성적, 미학적, 예술적 충동 등으로 감성과 관련 있는 욕망이며, 3차 욕망은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 등으로 지성과 관련 있는 욕망이라고 하였다.²⁴⁾ 또 욕망이 갖고 있는 긍정성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부정성 즉 욕망과 분노는 항상 서로 쫓아다니므로 인간의 마음은 크게 여섯 가지 상태로 나뉘어 짐도 언급하였다.²⁵⁾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²⁶⁾

구분	인간의 욕망	
有愛	1차 욕망 (신체와 관련된 욕망)	재물욕 식욕 음욕
	2차 욕망 (감성과 관련된 욕망)	성욕 예술욕
無有愛	3차 욕망 (지성과 관련된 욕망)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

<표 - 1> 인간의 마음 구조

上記한 <표 - 3>에서 인간의 마음 구조를 1차 욕망, 2차 욕망, 3차 욕망의 세 가지로 나눈 것은 불교의 三界論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한다.²⁷⁾ 불교에서는 중생이 생사에 流轉하는 迷

20) 上揭書, p 110
21) 上揭書, p 110
22) 上揭書, p 68

23) 上揭書, p 70
24) 上揭書, p 68
25) 上揭書, p 68
26) 김홍경, 활투 솜-rock침법, p 57
27) 三界 : 衆生이 生死에 流轉하는 迷의 세계. 곧 有情의 경계를 셋으로 나눈 것. 生死輪廻하는 미혹의 生存界(즉 有)의 분류이므로 三有生死라고도 하고 단순히 三有라고

의 세계를 欲界²⁸⁾, 色界²⁹⁾, 無色界³⁰⁾의 三界로 나누는데 이것은 有情³¹⁾의 경계에 따른 분류이다. 有情의 경계란 마음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착안하여 마음 구조를 크게 세가지로 나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欲界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고, 色界는 淨妙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고, 無色界는 물질을 초월한 세계이므로 욕망의 성질도 가장 물질적인 신체와 관련된 것, 덜 물질적인 감성과 관련된 것, 非물질적인 지성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마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현상을 바이오리듬 학설에서는 신체리듬, 감성리듬, 지성리듬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며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바이오리듬 학설을 제시하기도

도 한다. 즉 欲界(欲有), 色界(色有), 無色界(無色有)의 셋을 말한다.(弘法編輯部, 佛敎學大辭典, p 716)

28) 欲界 : 일종의 有情의 생존 상태, 또 그 유정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육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 나누는 중의 하나이다. 이 세계에는 식욕, 婬欲, 수면욕의 삼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계라고 한다.(弘法編輯部, 佛敎學大辭典, p 1139)

29) 色界 : 欲界, 無色界와 함께 삼계의 하나이다. 淨妙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로 四靜慮를 닦은 사람이 사후에 태어나는 天界, 또 그와 같은 유정의 생존을 말한다.(弘法編輯部, 佛敎學大辭典, p 799)

30) 無色界 : 欲界, 色界와 함께 三界의 하나이다. 물질을 초월한 세계로 물질적 비중이 큰 것(色想)을 厭離하여 四無色定을 닦은 이가 사후에 태어나는 천계. 또 그와 같은 유정의 생존을 말한다.(弘法編輯部, 佛敎學大辭典, p 408)

31) 有情 : 有情은 범어 sattva의 번역. 중생이라고도 번역한다. 生存하는 자란 뜻. 有情이라 함은 마음을 갖는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草木, 山川, 大地 등은 非情이라고 한다.(弘法編輯部, 佛敎學大辭典, p 1189)

하였다.³²⁾

그런데 왜 하필 ‘3’을 기준으로 하는 三界論에 근거하여 인간 심리 구조를 분류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 가령 의식적인 욕망과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나누어 ‘2’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유아기 때의 욕망과 소년기 때의 욕망과 장년기 때의 욕망과 노년기 때의 욕망으로 나누어 ‘4’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3’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그 까닭은 심리 구조를 十二經絡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라고 추측할 수 있다. 手足三陰經과 手足三陽經으로 나뉘므로 十二經絡의 기본 數 역시 ‘3’이기 때문이다. 즉 ‘3’을 기준으로 심리 구조를 분류한 것은 역시 ‘3’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十二經絡 체계와 연결함으로써 經絡이 의식과 감정의 통로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3)인간의 욕망은 六經 및 十二經絡과 관계가 있다

김홍경은 인간의 욕망을 1차, 2차, 3차 욕망으로 나누고 1차, 2차, 3차 욕망과 六經과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그는 太陰은 의식주 등 신체를 유지시키는 욕망의 만족과 관계 있고, 陽明은 호주머니가 비었을 때의 초조감, 허기짐, 재물 상실의 아픔, 누더기 옷을 입는 빈곤감, 배고픔 등과 관계 있고, 少陰은 性 충동, 예술적인 충동, 열정 등의 만족과 관계 있고, 太陽은 애인을 뺏기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 경계 의식, 긴장감 등과 관계 있고, 厥陰은 명예욕, 지식욕, 승부욕, 권력욕, 자존심 등과 관계 있고, 少陽은 명예욕에 따르는 수치심, 무지, 권력을 놓친 패배의식, 승부욕에서 비롯된 열등감, 공격적 성향, 파괴, 살인, 살생 등과 관계 있다고 하였다.³³⁾

즉 인간의 제 1차 적인 욕망인 의식주에 대

32) 김홍경, 동양의학혁명 총론, p 71

33) 上揭書, p 209

한 만족과 불만은 太陰經과 陽明經의 작용이고, 제 2차 적인 성적, 미학적, 예술적 충동 등의 만족과 불만은 少陰經과 太陽經의 작용이고, 제 3차 적인 명예욕, 지식욕, 권력욕 등의 만족과 불만족은 厥陰經과 少陽經의 작용이라 하였다.³⁴⁾ 그리고 사람이 일으키는 1차, 2차, 3차 욕망의 만족과 불만족의 상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經絡 에너지의 성쇠가 결정된다고 하였다.³⁵⁾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⁶⁾

구분	인간의 욕망		六經	
			만족	불만족
有愛	1차 욕망	재물욕 식욕 음욕	太陰 안심	陽明 초조감
	2차 욕망	성욕 예술욕	少陰 쾌락	太陽 공포감
無有愛	3차 욕망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	厥陰 칭찬	少陽 분노감

<표 - 2> 인간의 욕망과 六經의 관계

위의 <표 - 4>를 살펴보면, 만족 상태와 陰經을 연결시키고 불만족 상태와 陽經을 연결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욕망의 만족을 陰으로 보고 욕망의 불만족으로 인한 분노를 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³⁷⁾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관찰례를 들었다.

기분이 좋거나 만족한 상태가 되면 입안에 물이 고이고 숨을 들이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쇼 윈도우에 진열된 많은 보석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는 한숨을 내쉬니다.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입안에 찬

기운이 고이고 밖으로 내 쉬면 더운 기운이 생깁니다.³⁸⁾

따라서 陰은 마음의 긍정적인 상태, 陽은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經絡과 관련지어 보면 陰經絡은 마음의 긍정적인 상태, 陽經絡은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³⁹⁾ 그런데 만족과 불만족을 각각 陰經과 陽經하고 연결시킨 근거로 上記한 관찰례를 제시한 것과는 달리 신체와 관련된 욕망의 만족과 불만족을 太陰과 陽明하고, 감성과 관련된 욕망의 만족과 불만족을 少陰과 太陽하고, 지성과 관련된 욕망의 만족과 불만족을 厥陰과 少陽하고 연결시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그 까닭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다만 上記한 관찰례나 '재물욕, 성욕, 명예욕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해야 그것들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예를 들면 돈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초조감, 애인을 잃었을 때 오는 시기심과 질투심, 낙선되었을 때 오는 패배감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熱도 陽明熱, 太陽熱, 少陽熱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상태를 예민하게 주시해야 합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그의 주장이 마음의 상태와 이에 따른 육체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가 주장하는 唯心的인 六經의 이미지와 十二經絡의 이미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⁰⁾⁴¹⁾

34) 上揭書, p 72

35) 上揭書, p 72

36) 김홍경, 활투 솜씨침법, p 57

37) 김홍경, 동양의학혁명 총론, p 85

38) 上揭書, p 77

39) 上揭書, p 85

40) 上揭書, p 220

41) 上揭書, p 204 - 206

김홍경, 활투 솜씨침법, p 60 - 90

	正氣	邪氣	六經의 이미지	관련 욕망
太陰	재물욕 식욕	교만 지루감 나태	中和, 매끄러움, 부드러움, 뚱뚱함, 肉質풍부, 바나나	1차 (신체 관련)
少陰	예술적 정열 성적 정열	음탕 방탕 방종 퇴폐적 쾌락	번성, 꽃, 蘭, 열정에 빠진 妓生, 유연, 민감, 上昇, 화려함, 作家 李箱, 공작새	2차 (감성 관련)
厥陰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 자존심	거만 교만 경쟁 경멸	收斂 回轉 운동성, 질긴 것(근육), 덩굴 식물	3차 (지성 관련)
陽明	초조함 허기감 재물 상실의 안타까움 청빈함	거지 근성 궁상맞음	건고, 건조, 마른 체질, 키가 쪽 뻗음, 殺氣, 뻘뻘함, 秋冬에 강함, 나무 껍질, 섬유질, 가시	1차 (신체 관련)
太陽	공포, 긴장감 조심성 경계 의식	겁쟁이 의혹, 의심 용렬한 마음 허무	冷 긴장성, 생식 능력 저조, 조심성, 위축성, 찬물, 神經草(미모사)	2차 (감성 관련)
少陽	수치 무지 패배 의식 반성심	잔혹, 쌀쌀함 살생 열등감 자기비하 의식	폭발, 발산, 슴털, 반딧불, 민들레, 전기 뱀장어, 키가 큼(불안), 四天王像의 눈	3차 (지성 관련)

<표 - 3> 取象을 통해 살펴본 六經의 이미지

<표 - 5>에 나타난 六經의 唯心的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령 少陰經의 경우 正氣로 작용하면 정열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實해져 邪氣로 작용

하면 음탕해지고 퇴폐적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조심성과 경계 의식을 담당하는 太陽經絡을 補함으로써 퇴폐의식을 일으키는 少陰經의 實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五行	六氣	唯物的 取象	唯心的 取象
手太陰肺經	金	土	계란, 고무, 만년필, 유조선, 비행기	사막에서 오아시스 발견 점심 굶고 저녁을 배로 먹는 것
手陽明大腸經	金	金	멧돌, 권총, 사막의 마른 선인장, 마른 스펀지, 다이아몬드	배도 고프고 돈도 떨어진 경우 아주 초조한 상태
足陽明胃經	土	金	광천수, 광산, 백사장	밥 잘 먹고 식중독 걸린 상황 여행가서 돈 떨어졌을 때
足太陰脾經	土	土	물고인 웅덩이, 찹쌀떡, 자궁속의 아기	많이 먹고 난 후의 포만감 주운 복권으로 1등 당첨 편안히 쉬고 있을 때의 지루함
手少陰心經	火	火	폭탄주 여름날의 만원버스	사막의 자동차 경주 선수 벤토벤의 광란
手太陽小腸經	火	水	사막의 오아시스, 한여름의 소나기, 血, 불난 집에 물 끼얹기	전쟁후의 황폐 주택복권의 아차상
足太陽膀胱經	水	水	겨울의 냉수마찰, 겨울 밤 하늘의 만월, 설상가상, 바다, 저수	겨울밤의 공동묘지 탐험 정글에서 길 잃은 후 만난 식인종
足少陰腎經	水	火	술, 용암, 석유, 수중 sex, 호롱불, 精	못 만날까 걱정하다가 다시 만남 분만의 공포에 떨다가 무사히 출산
手厥陰心包經	火	木	불난 집에 부채질 따스하게 햇볕이 내려 쬐이는데 산들바람이 부는 것	밤새워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4수 끝에 대학입학 기초의회 낙선 후 광역의회 당선
手少陽三焦經	火	火	돋보기로 빚모으기 한여름의 온실 번개로 인한 화재	소매치기 당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또 강패한테 맞은 경우
足少陽膽經	木	火	풍력발전, 회초리, 햇불	거만한 여자가 바람 맞음 선거유세에서 비웃음만 산 경우
足厥陰肝經	木	木	방풍림, 대나무 부채, 피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판자촌에 세단차 몰고 들어가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 나설 때 수업시간에 떠드는 아이 이름 적었다가 본인에게 불러 주는 것

<표 - 4> 取象을 통해 살펴 본 十二經絡의 이미지

<표 - 6>에 나타난 十二經絡의 唯心的 取象을 해석하고 이를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령 足太陰脾經의 경우 正氣로 작용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 주지만 實해져 邪氣로 작용하면 지루감과 권태감이 생겨 사람이

늘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초조감을 일으키는 手陽明大腸經을 補함으로써 지루감을 일으키는 脾經實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唯心的 脾實인 지루감과 권태감은 정신적 濕에 해당하는 것으로 脾經實인 濕病을

大腸經으로 조절하는 唯物的인 치료법과 일치한다.⁴²⁾ 이것은 唯心的 해석이 唯物的 해석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經絡을 이용한 精神養生法이 精神養生法과 임상에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결론

精神養生과 經絡 이론을 접목한 김홍경의 학설을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김홍경은 經絡 이론에 대한 일반적 通說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만 經絡을 해석함에 있어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덧붙였다. 그의 經絡 해석 방법의 특징은 唯心的 해석 방법을 도입하여 經絡을 의식과 감정의 통로로 파악한 것이다.

2. 김홍경의 假說에 의하면 經絡과 精神養生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經絡은 精神養生法의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 經絡을 이용한 精神養生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3
2.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5
3.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許浚 著, 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印文化社, 1999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 1986
5.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6. 舍岩道人 著, 李泰浩 編著,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全), 서울, 杏林出版社, 1989
7. 김홍경, 東洋醫學革命 總論,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1
8. 김홍경, 東洋醫學革命 各論,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4
9. 김홍경, 활투 舍岩침법,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2
10. 김홍경, 東醫에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4
11. 김홍경, 東醫 한마당,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4
12. 김홍경, 좋다 싫다 생각해보자, 서울, 삼진기획, 1991
13. 김홍경, 新古典 사랑방,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5
14. 김홍경, 건강으로 가는 주역 탐구, 서울, 삼진기획, 1991
15. 김홍경, 금오 新話,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3
16. 김홍경, 의생금오고락기,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1
17. 김홍경, S를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신농백초, 1991
18. 김광호 編著, 豫防韓醫學, 서울, 書苑堂, 2002

42) 김홍경, 동양의학혁명 각론, p 180 - 191